| 현불 논단 |

‘모름’은 죄업의 변명이 아니다



이미령
칼럼니스트

누군가 피해입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나와
‘몰랐다’는 비겁한 변명

변명 뒤에 감춰진 ‘악의’
피치 못해 짓는 죄보다
죄업의 두께 두꺼워

악업과보는 반드시 돌아와
어리석음 버리고 참회하길

업에 관한 강의를 마칠 때면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나온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중에,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겁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의 출처는 〈밀린다왕문경〉이다. 그리스인 메난드로스왕이 인도 현자 나가세나 스님에게 물었던 한 대목에서 나온 것이다.

“존자여, 당신들은 ‘모르고 살생을 하는 자는 알고 살생하는 자보다 한층 중대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비유를 든다.

그런데 여기 가난한 어머니가 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 여럿을 키우고 있는데,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다. 신용카드는 당연히 정지됐고, 이웃이나 일가친척에게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다. 일하러 나가고 싶지만 어린 아이를 맡길 곳도, 맡길 돈도 없어 속수무책 도리 없이 굶고 있는 중이다.

며칠 째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다 못해 어머니는 집밖으로 나갔다가 빵집 앞을 지나게 됐다. 활짝 열린 빵집 안에는 오븐에서 막 꺼낸 빵이 푸짐하게 놓여 있었다.

‘저 빵 한 덩어리만 우리 아이들 먹였으면…’ 마음은 간절하지만 돈이 없으니 살 수는 없고, 훔치려니 그건 차마 해서는 안 될 짓이란 걸 어머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침 빵집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어머니는 빵 몇 개를 움켜쥐고 달아났다.

이런 경우가 알고 짓는 죄다. 물론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이건 절도죄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행동이 악업이요 범죄라는 걸 알고 있는 어머니에게 그 부끄러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처절하겠는가. 어쩌면 어떻게든 빵값을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이 잘못인 줄 아는 사람은 같은 잘못을 함부로 저지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열린 점포를 기웃거리며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무엇이든 가지고 나오고, 배고픈 어머니의 경우와 달리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짓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친구에게도 함께 하자고 권하는 경우다. 이런 자의 행위는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지금 행위가 잘못인 줄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도 권하며 점점 더 대담하게 저지를 것이다. 모르고 짓는 죄의 경우다.

모르고 짓는 죄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그게 잘못이며 죄요, 악업인 줄 ‘왜’ 모르는가?

둘째, ‘정말’ 몰랐는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커다란 피해를 입고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죗값이, 악업에 따른 과보가 자신을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어리석음이다.

요즘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일들이 심상치 않다. 하나의 사건 뒤에 너무나도 엄청난 부정과 부조리와 비위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 권력자의 비호, 마약 상습 복용, 무단으로 찍고 돌려보는 동영상들, 한번 적발됐을 때 ‘사죄하느라 힘들었다’ 며 웃어대는 무개념, 우리는 이런 짓들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무단으로 찍은 동영상을 구하려고 눈이 벌게진 사람들 이야기까지도 들려온다.

어리석기가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 줄 안다면 그리할까. 바로 그 모름이 죄라는 걸 일러줘야 할 차례다. 어리석음의 죗값이 얼마나 큰지 똑바로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社說

소외계층 돌보는 봉축 맞자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사찰에서는 봉축 준비에 한창이다.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는 가운데,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행이 눈길을 끈다.

서울 조계사가 장애인법회를 여는 가하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3000배 철야정진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열 예정이다. 또 공익캠페인 행복바라미도 시민참여형으로 전개된다. 이밖에도 봉축주간에는 독거어르신, 한부모자녀, 다문화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자비나눔이 펼쳐질 예정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이타행을 통해 세상을 정토로 가꾸기 위함이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주변의 이웃까지도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법을 알려주셨다.

자리이타행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대중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길 발원했다. 하지만 현재 불자들에게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저 해마다 반복되는 연중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지나가면 안 될 일이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경제난으로 영세점포가 줄지어 폐업하고, 청년층의 취업난도 가속화되고 있다. 독거어르신들 또한 증가 추세다.

불자들에게 있어 부처님오신날이야말로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음을 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부처님처럼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날이었으면 한다.

사찰 곳곳마다 하나둘씩 봉축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 이제 등불을 밝히듯 마음에도 심지를 돋아 자비광명을 비추는 참불자가 되길 바란다.

도로표지판 복구는 ‘사필귀정’

2017년 한국도로공사가 국내 고속도로 표지판에 표시된 사찰명을 삭제한다고 밝혀 물의를 빚은 사건이 조계종의 오랜 노력 끝에 원만하게 해결됐다. 이 사건은 사필귀정(事必歸正), 단 네 글자로 평가된다.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사찰명이 삭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주관부처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단순히 현행 관리지침에 맞지 않고, 민원이 제기됐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문제없이 표지판에 사찰명이 명기됐다는 점에서 의문을 낳았고, 놀이공원과 스키장 등 제1·2종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은 안내가 가능해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관리지침이 개정된 2003년 이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중 건조물과 사적지, 경승지 등을 표지판에 명기할 수 있었기에 ‘잘못된 지침 개정’ 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계종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문체부와 문화재청 협조를 얻어 국토부를 방문하고, 관리지침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모호한 지침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에 도로공사 측도 철거를 잠정 중단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2년 가까이 문제가 된 도로표지 관리지침은 이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사찰명을 존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까지 안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각 부처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국가적으로 제고하고, 후대에 바르게 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텃밭으로 지구를 지키자

봄이 왔다. 봄이 온 걸 가장 가까이 느끼는 곳은 우리 집 베란다이다. 곳곳에 벚꽃, 개나리, 동백 등이 피어나는 바깥 풍경보다 더 빠르게 우리 집 베란다엔 봄이 온다. 봄꽃을 보기엔 이르다 싶을 때, 어느새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 화분의 흙을 쏟아 붓고 분갈이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이번 봄도 어김없이 집에서 가까운 꽃시장에서 꽃모종을 사서 심었다. 조만간 방울토마토, 상추 등도 심고 키우게 될 것이다. 유치원 다닐 때 작은 농부상을 받았던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식물을 가꾸는데 열심이다. 다육이, 선인장, 벤자민, 산세베리아, 파키라, 베고니아 등 수많은 화초와 나무에다 올 봄에는 소철까지 목록에 더해져 베란다 한 곳에 자리 잡았다.

비록 베란다의 작은 화분에서 이루어지는 농사지만 나와 아들이 농사를 멈추지 않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상추 몇 포기만 심어 가꾸더라도 흙에 기대어 무언가를 가꾸어 본 사람만이 아는 즐거움과 혜택이 상상 이상이기 때문이다. 날로 푸르러지는 식물들을 보면 햇살, 바람, 비, 흙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게 되어 자연 앞에 겸손해지고 공생의 도리를 체감하게 된다.

그런데 위대한 자연의 힘을 먹고 자라서인지 베란다에서 자라는 식물의 힘도 무시 못 한다. 푸른 잎들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광합성을 하며 산소를 내뿜는다. 베란다 채소밭이나 미니 정원을 가꾸기만 해도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수 있다. 작은 텃밭 하나가 오염된 지구를 정화시키는 산소 알약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처럼 텃밭이 이상 기온,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고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므로, 여러 지자체나 환경단체, 학교 등에서 베란다 텃밭, 도시 농업, 학교 텃밭 등 다양한 방법으로 텃밭을 권장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화분 하나로 주머니 텃밭, 상자 하나로 상자 텃밭 등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텃밭으로 이산화탄소량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다. 유치원, 학교 등에서도 생태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하며 꼬마 농부와 어린이 농부를 길러내고 있다. 특히 유치원과 학교에서 이뤄지는 텃밭 가꾸기는 흙, 생명과 교감하는 정서를 길러내는 것은 물론,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소중함까지 알게 해 주어 교육 효과가 크다.

그렇다면 베란다 텃밭으로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얼마나 될까? 베란다 텃밭에서 1년간 수확하는 양을 평균 100g이라고 생각해서 이산화탄소량을 삭감하는 수식에 대입시켜 보면 1년에 1억660만kg을 줄일 수 있다. 이 수치는 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인 우리 집을 어느 새 산소 가득한 숲 속처럼 느끼게 한다. 또한 곳곳에서 키우는 작은 나무 한 그루들이 모인다면 그 작은 나무들이 급격히 사라져 가는 숲을 조금이라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상상도 해보게 된다.

이 봄이 가기 전, 아픈 지구를 위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집이나 사무실에 들여 보길 권한다. 봄이 가고 초여름이 오는 계절을 따라 꽃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찾아 올 것이다. 그건 우리 마음을 맑게 하는 선물일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천년의 보배
3일만에 깨치는 야포禪

국판 218쪽
석호 지음
12,000원
철저하게 친절한 깨달음으로의 안내
부디 실행하라
그대 탄생의 이유
완전한 존재가 된다.
홀연히 섬으로 간 스님, 뭘 하시나 했더니 법어를 낚고 계셨네요.
- 제자 광목심 장윤정
❋ 이 책은 깨달음의 세계화 · 나눔을 실천하라는 저자 석호스님의 뜻에 따라 5권 묶음으로만 판매합니다.
5권 묶음판매
배부른 소리, 맞습니다.
배 부르니 당신께 내 밥
덜어드릴 수 있어 좋지요.
주는 게 복이니까
깨달음의 선물, 선물하세요.
선물하고 또 선물하면
당신 마음의 키는 쑥 커집니다.
커진 만큼 넉넉해지고
커진 만큼 평온해지므로
배부른 이 권유는
당신을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육지도에서 석호 물처럼
모든 게 변한다. 할 수 있을 때 하고 줄 수 있을 때 줘라.
❋ 석호스님 법문초청을 원하는 사찰이나 단체는 20일 전에 예약해 주십시오.
5권 정가 : 60,000원 → 공급가 : 54,000원 (배송무료)
주문처 : 도서출판 연 화 ☎ 010-9377-1923
주문송금계좌 : <농협> 703-01-384100 (지차연)


국내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특허 제10-1767202호
사 대웅전 | 스틸한옥
업 일주문 | 가 든
부 건축 및 조형물


목재대비 유사도 90% 이상 저렴한 비용!
바늘 끝같은 정교함
사무실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